

“나눔·봉사문화 확산”…광주FC, 사회복지시설서 온정

남구노인복지관서 식사 지원 등…회복 음료 300여개 후원

프로축구 광주FC가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광주는 최근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봉사에는 이현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구단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배식, 설거지, 환경 정리 등 식사 지원 전반에 걸친 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주는 총 4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제공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 광주는 어르신들의 수분 보충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복 음료 ‘링티’ 240개를 후원하며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을 보탰다.

박해진 남구노인복지관 부장은 “힘든 일이었을 텐데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보내준 광주FC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현 광주FC 경영본부장은 “시민구단으로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에게 믿음 주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되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광주FC는 최근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FC

“전남, AI·에너지·해양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 핵심 구축”



전남도는 최근 도청 왕인실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초청해 ‘전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전남포럼을 열고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성과 중장기 비전을 공유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전남, 어제 오늘 그리고...’ 강연

전남도는 최근 도청 왕인실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초청해 ‘전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전남포럼을 열고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성과 중장기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1999년 2월 첫 회를 시작한 이후 27년 만에 맞은 제300회로, 도와 시군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남이 나아가야 할 전략과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전 지사는 2019년 2월 ‘전남 100년, 미래를 창조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되겠다’를 주제로 한 특강 이후 7년 만에 전남 도청을 다시 찾아,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

를 짚고 앞으로의 발전 경로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 강점을 토대로 한 전략적 선택과 장기적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은 풍부한 자원과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AI·에너지·해양 산업을 키운다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포럼은 도청 주요 현안과 역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명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연간 10회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공감대 형성과 내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ws1@gwangnam.co.kr



동강대는 최근 교내 전산교육원에서 전체 교직원 대상 대학홈페이지 연동 챗-GPT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동강대 교직원 챗-GPT 역량 강화 교육

작년 KT전남법인과 협약…강의·행정 실무 활용법 배워

동강대학교가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혁신 솔루션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강대는 최근 교내 전산교육원에서 전체 교직원 대상 대학홈페이지 연동 챗-GPT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KT전남법인과 맺은 ‘AI 교육혁신’을 위한 업무협

약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양 기관은 AI chat, Labs 등의 ‘Edu GPT’와 Open AI, Claude 등 8가지의 ‘Multi LLM’과 연동되는 AI 교육환경 서비스를 구축해 왔다.

동강대는 이번 교육에서 Chat-GPT를 활용해 교육과 행정 업무에 유용한 다양한 활용법을 배웠다. 김인수 기자 joinsu@

광주문화재단. ‘우수재단’ 선정…예술·기업 동반성장 성과

지역 중심 체계 지원·메세나 활성화 등 인정

위원장상·시상금 수상 “후원 생태계 조성 앞장”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시상식’에서 우수재단으로 선정, 위원장상과 시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재단의 이번 수상은 2025 지역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받게 됐다.

지역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인·예술단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전국 23개 문화재단이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15개 재단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중 광주문화재단을 포함한 11개 재단이 상장금과 시상금을 수여받았다.

광주문화재단은 기업 후원금이 예술 현장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정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예술 생태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예술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온 그간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메세나 활성화를 통해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시상식’에서 우수재단으로 선정, 위원장상과 시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를 만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홍문표 aT 사장, K-푸드 경쟁력 강화 ‘총력’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16일 전국 5개 지역본부로부터 현장 업무보고를 받고 신제품 발굴과 수출 확대를 통한 K-Food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홍문표 사장은 대전충남·대구경북·부산 울산·경남·제주 지역본부의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수출 확대와 관련해 홍 사장은 “우수 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K-Food 식품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수출단지 구축과 신제품 생산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제주·청라도 직항로 활용, 수산식품 수출 협력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수출 전략 추진을 주문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인사

곡성군 ◇4급승진 △민원실장 이정주
◇5급 승진 △군민협력과장 직무대리 이미정
◇5급 진보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문식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

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블로그 창업희망자 숙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운세 (음력 12월 1일)

48년생 가능성이 낮으니 안도하는게 낫다
60년생 그럴듯한 영분에 현혹되면 곤란하다
72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쁜 일이 많다
84년생 신중을 기하면 영예로운 일이 있다
96년생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해라

51년생 무조건 돌아오는 대로 잡아 두라
63년생 벗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 것
75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자연스럽다
87년생 전업이나 사업은 삼가는 것이 좋다
99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54년생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66년생 대범하게 대처하면 남매는 면한다
78년생 지금이 재산증식의 기회
90년생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

57년생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69년생 둘 다 귀하 것이 아니니 건네주라
81년생 뒷사람과 서둘러 화해하라
93년생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보라

49년생 결부 시킬 필요까지 없겠다
61년생 수입으로 주머니가 배로 늘어난다
73년생 약속이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85년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로 쓴 맛을 보는 날
97년생 가족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라

52년생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되짚어 볼 때
64년생 주위사람이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76년생 한번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날
88년생 재능이 있으니 늦게라도 이뤄진다

55년생 애섯사람과 충돌이 있으니 양보하라
67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일이 마무리된다
79년생 원하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다
91년생 손윗사람에게 부탁하면 해결된다

58년생 신뢰하는 이가 더 많으니 안심하라
70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82년생 문서 결정은 피하라
94년생 돈소문으로 사생활을 침해 당할 수 있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다 끝낸 일이 다시 불거진다
62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
74년생 거래 운이 들어오니 손리대로 하라
86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98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53년생 돈 보다도 신용을 더 중요시 하라
65년생 정도만 지킬 수 있다면 충분했다
77년생 호사다마요 새옹지마로다
89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56년생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 없다
68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거래가 이뤄진다
80년생 나의 능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느낀다
92년생 지금 당장 머리부터 식혀라

59년생 집 정간에 허점 보이니 철저히 살펴라
71년생 이제부터 잘 돼가는 징조가 보인다
83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알아야 한다
95년생 돈이 막히는 날